

자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정착방안

범업계 차원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 영 농협중앙회 양계팀장

지난 9월18일 농촌진흥청에서 축산과학원과 한국토종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FTA 대응 토종닭 산업의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500여명에 달하는 토종닭 사육 농가와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황을 이룬 자리에서 종합토론 시간에 의무자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금년에는 토종닭 산업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 토종닭 사육으로 새로이 진입한 육계 농가들이 많았으며, 육계가격의 저가 지속에 따른 백세미의 토종닭으로의 둔감도 140여만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게다가 8월 최성수기에 이상 기후로 인하여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토종닭 소비가 막대한 지장을 받아 냉동비축 등으로 근근이

버티었으며, 토종닭의 산지시세는 생산비의 3분의 1에 불과한 생체 kg당 500원에 이르는 등 농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절정에 달해 협회를 중심으로 매물하기도 하고 소비촉진 행사도 한바 있었다. 이에 토종닭 산업계의 어려움과 업계의 자율 수급조절사업에 발맞춰 정부와 농협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8월 말일부터 9월 15일까지 토종닭 50만수를 염가로 판매하는 직접 생산조절사업을 실시하였다. 수당 700원을 보조 지원하여 총 35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다. 다행히 추석직전에 시세가 1,000원, 10월들어 1,500원으로 회복되는 효과를 거양하여 한 시름을 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토종닭 산업에 드리워진 구름은 걷히지 않고 있다. 그간 농협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직접적인

생산조절사업은 지양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금번 토종닭의 수급조절사업은 토종닭 산업이 피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여튼 심포지엄의 종합토론 시간에 토종닭 사육농가의 질문 요지는 금년도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의무자조금 사업의 절실함을 느꼈다는 것과 토종닭 산업계만이라도 의무자조금 사업을 별도로 시행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었다.



편중되는 특성이 있으나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소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요인들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양계산물은 소비되기 마련이지만 농가는 가격등락으로 인한 경영압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축산물 자조금의 도입이 일천하기에 도입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으나 2005년도의 축산물 소비량을 보면 198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만 계란의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증가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산물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양계농가의 소득도 증가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비조사보고서의 산란계 농가소득이 적자인 것으로 볼 때 그렇지 않

1. 양계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촉진으로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자조금의 목적은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국내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실태를 돌아보면 수입 축산물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지만 AI, 구제역, 광우병 등 악성질병의 발생에 따른 수입중단과 재개, 그에 따른 대체효과 등의 영향도 컸다. 또한 닭고기는 계절적 소비가

표1.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

(단위 : kg)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5/1985(배)
닭 고 기	3.07	4.01	5.98	6.92	7.58	2.47
계 란	7.20	9.18	10.13	10.26	12.05	1.67
쇠 고 기	2.92	4.13	6.72	8.51	6.74	2.31
돼지고기	8.41	11.78	14.75	16.50	17.82	2.11

* 자료 :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농협중앙회, 2006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계산물은 단순 생산에서 밀어내기식 소비보다는 수급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촉진을 꾀해나가면서 산업발전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 하겠다.

2. 제로섬에서 상생으로

생산위주에서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자조금인 만큼 여타 축산물의 소비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수입 축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계산물의 자조금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간 산란계 자조금은 차치하더라도 육계 자조금의 도입에 있어서 보면 육계업계 전체의 이익이 한쪽이 득을 보면 한쪽은 반드시 손해 보는 것으로 보아왔고, 이는 도입주체인 축산단체간이나, 축산단체와 사육농가간, 육계농가와 토종닭농가간, 육계농가와 종계농가간, 일반사육농가와 계열사육농가간, 계열업체와 계열농가간, 모든 이해당사자간의 정해진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가에만 맞추어져 왔다(제로섬, zero-sum). 결국 이러한 대처 구도로 인하여 육계산업계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제로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제로라기보다는 서두에서 토종닭 사육농가가 제기하였듯이 마이너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상생(相生)과 시너지를 생각해야 할 때다. 전체의 이익을 키워나가야 한다. 양계산물의 소비를 확대시키고, 국내산 양계산물의 품질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동시에 양계산업이 수지가 맞는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되돌아보면 양돈 자조금 사업은 이제 10월에 제2기 대의원 선출을 선출하여 11월에는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한우와 낙농 자조금도 공중파 방송의 소비홍보 광고를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어 부러움을 느낀다.

3. 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실행으로 나타나야

육계 자조금을 도입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벌써 자조금 대의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바로 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출범시킬 수 있다. 4차례에 걸쳐 관리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었으며, 복을 넘기고는 다시 소집하지는 의견들이 있었다. 다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조금을 거출하고 사업을 실행할 때 그 효과가 자조금을 부담한 만큼 있을까, 그리고 그 효과가 농가에게 귀속될 것인가에 매여 있어서 진전이 없다. 그 효과는 이미 여타 축산물의 자조금에서는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결국 각 축종별로 업계는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따름이다. 먼저 도입된 양돈이나 한우, 낙농은 정착이 되어 알차게 소비홍보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소비자들로 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육계자조금도 축산단체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다 큰 안목에서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농가 스스로의 자조금인 만큼 출범하려는 의지표명과 아울러 양계업의 현실과 미래가 확실한 상황에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범업계 차원에서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양계**